

COVID-19와 금융시장

연세대학교

김창수 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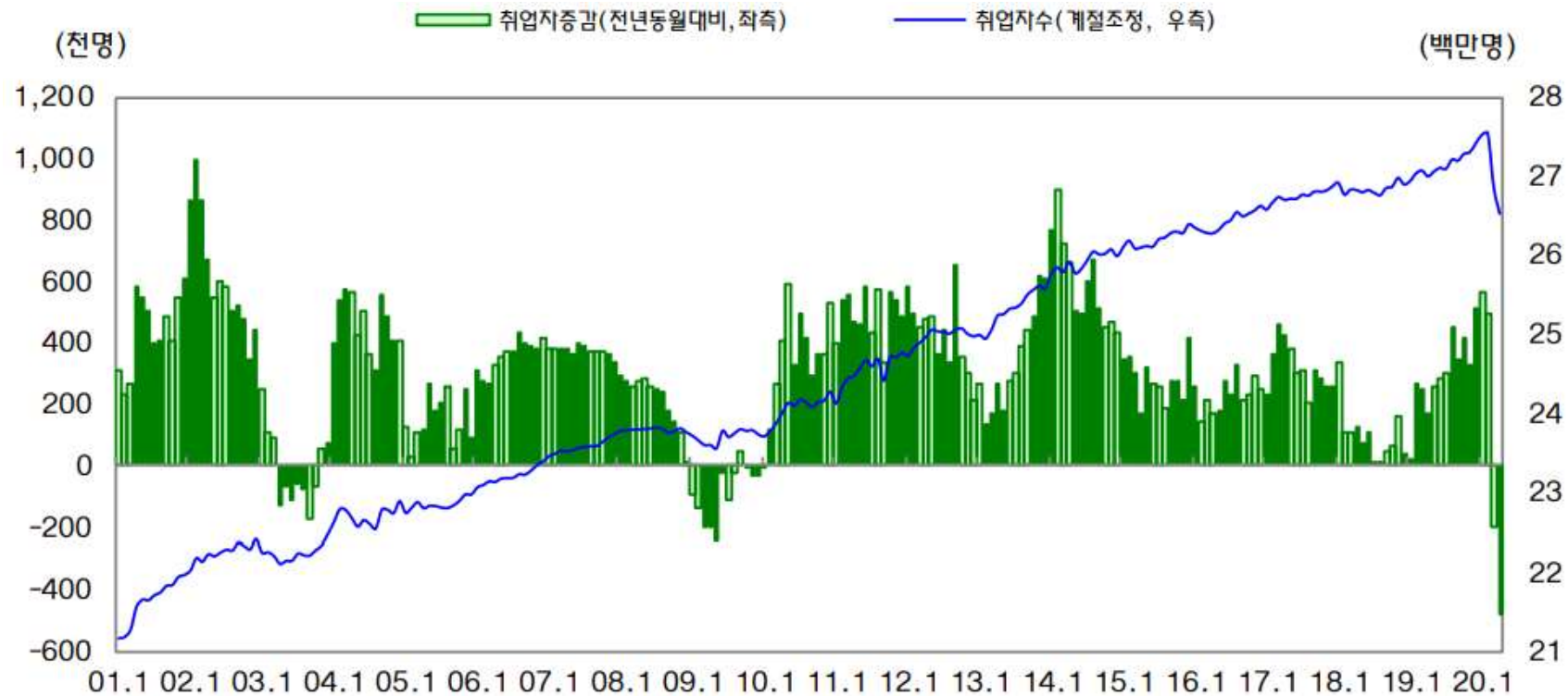
목 차

1. COVID-19의 영향
2. 각국의 단기 대책
3. COVID-19 이후의 경제
4. 뉴 노멀 시대의 금융시장
5. 뉴 노멀 시대 금융시장 전망

COVID-19 진행 과정

- 2019. 12. 31. WHO에 최초 보고
- 2020. 01. 09. 첫 사망자 발생
- 2020. 01. 15. WHO 사람간 전염 가능성 언급
- 2020. 01. 20. 한국 첫 확진자 발생
- 2020. 02. 11. WHO, 신종코로나바이러스 명칭 COVID-19로 결정
- 2020. 03. 11. WHO Pandemic 선언
- 2020. 06. 18. 확진자 8,391,460; 사망자 450,436; 치사율 5.4%, 발생
국 2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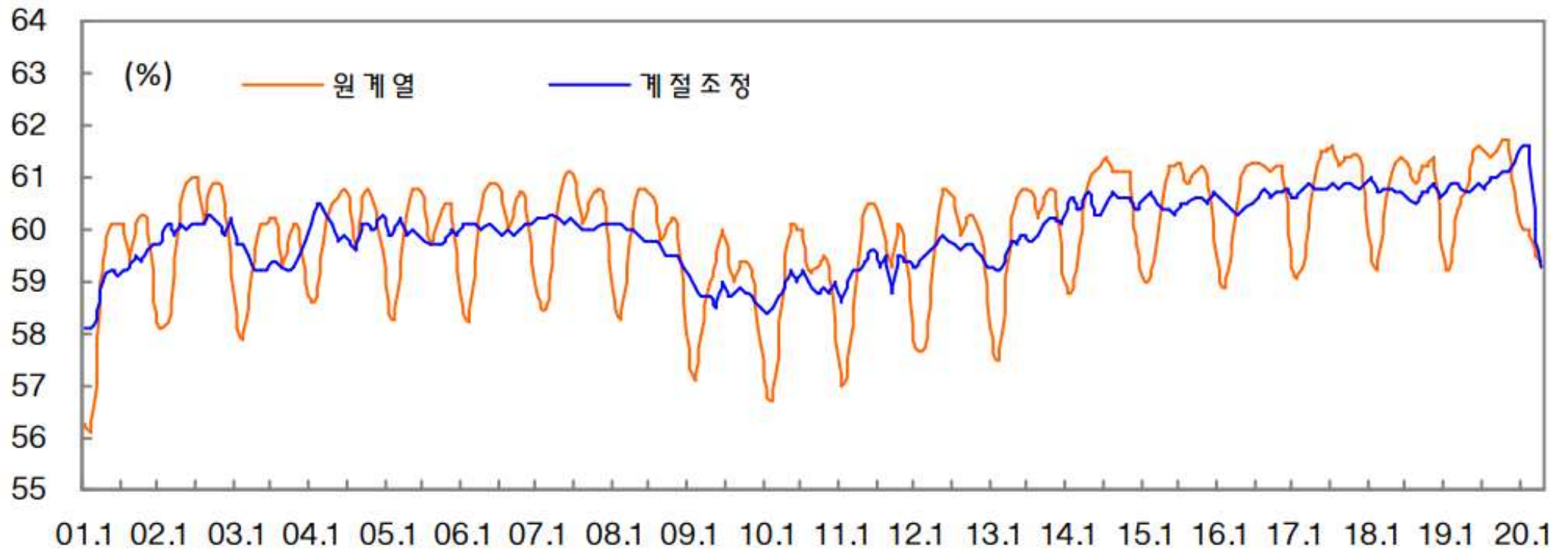
취업자 수와 취업자 증감 추이



자료: 통계청(고용동향)

4월중 취업자는 2,656.2만명으로 전년동월 대비 47.6만명 감소 (21년 2개월 만에 가장 큰 폭 감소), 5월 39.2만명 감소; 실업급여 1조원 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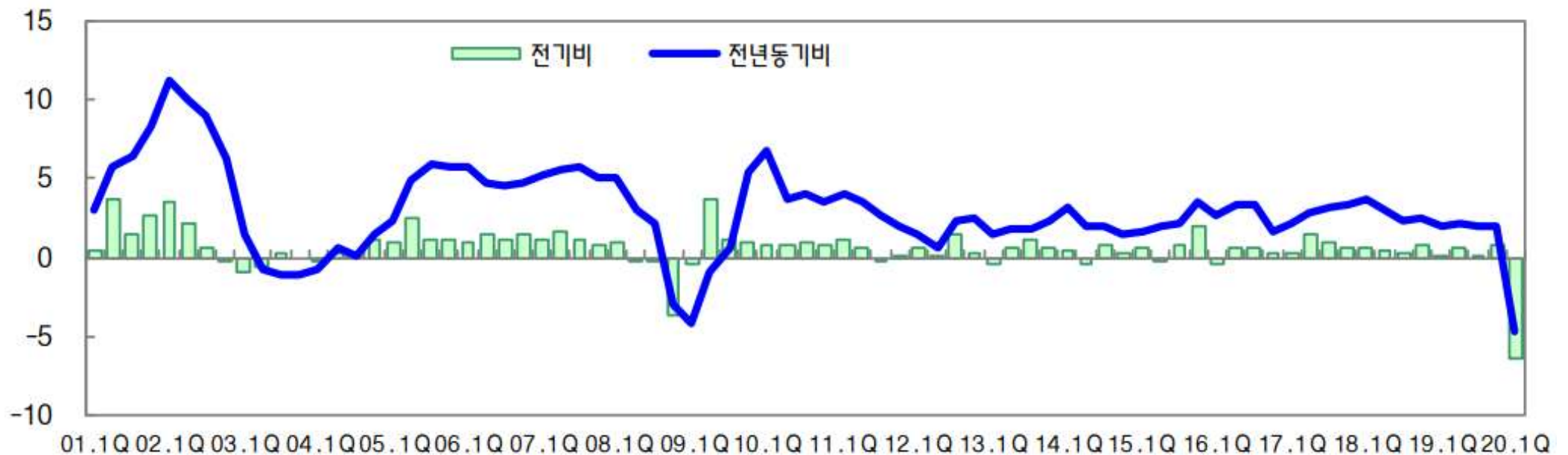
고용률 추이



자료: 통계청(고용동향)

4월중 고용률은 59.4%로 전년동월대비 1.4%p 하락(고용률=취업자수/생산가능인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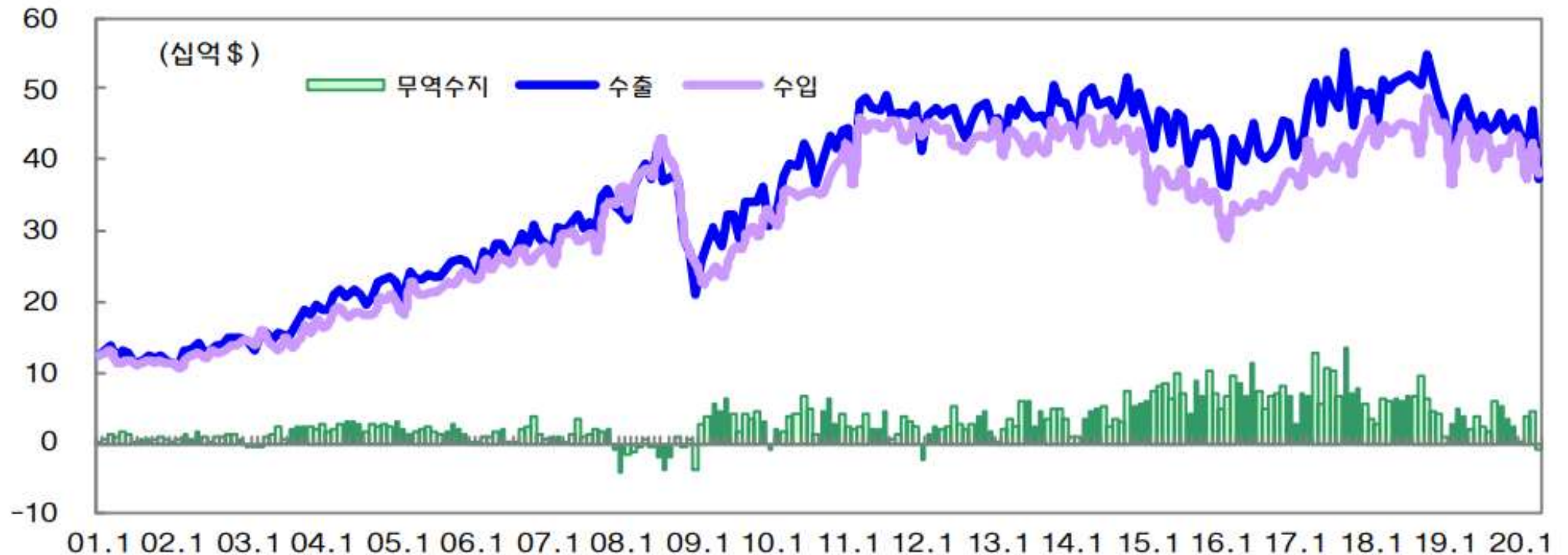
민간소비 추이



자료: 한국은행(국민계정)

2020.1/4분기 민간소비는 전기대비 6.4% 감소(전년동기비 4.7% 감소)

수출입(통관기준) 추이



자료: 관세청, 산업통상자원부

5월 수출은 전년 동월비 23.7% 감소한 348.6억 달러 (3개월 연속 감소)

미국 GDP 및 산업생산



자료: 미 상무부, FRB

2020. 1/4분기 GDP 성장률 -4.8% (2008. 4/4분기(-8.4%) 이후 최저)
실업률: 3.5%(50년 최저) -> 2분기에는 15-20% 예상, 3월 중순 이후 4,420만 실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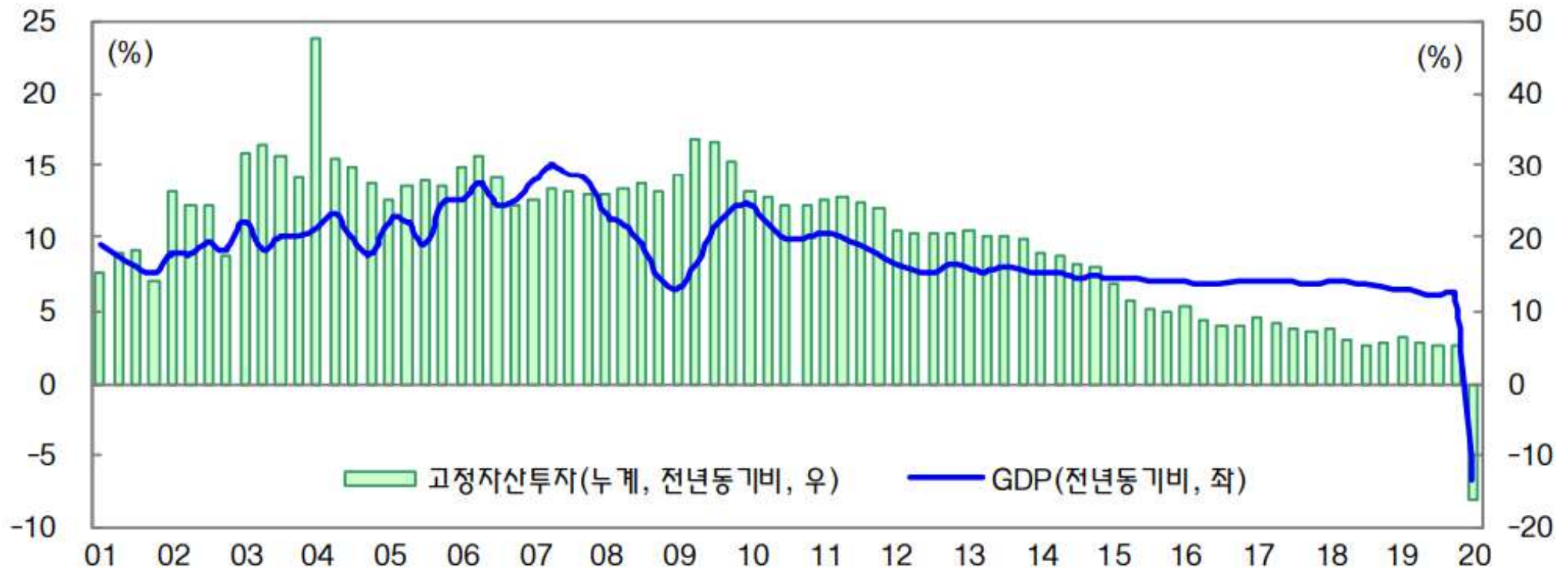
유로 GDP 및 산업생산



자료: 최근경제동향(2020년 5월)

2020. 1/4분기 GDP 성장률 -3.8% (1995년 통계작성 이래 최대 하락)

중국 GDP 및 고정자산투자



자료: 최근경제동향(2020년 5월)

1~2월 봉쇄조치 등으로 1/4분기 GDP가 1992년 통계 발표 이후 처음으로 (-)성장 (-6.8%, 전년동기비)

- 캄보디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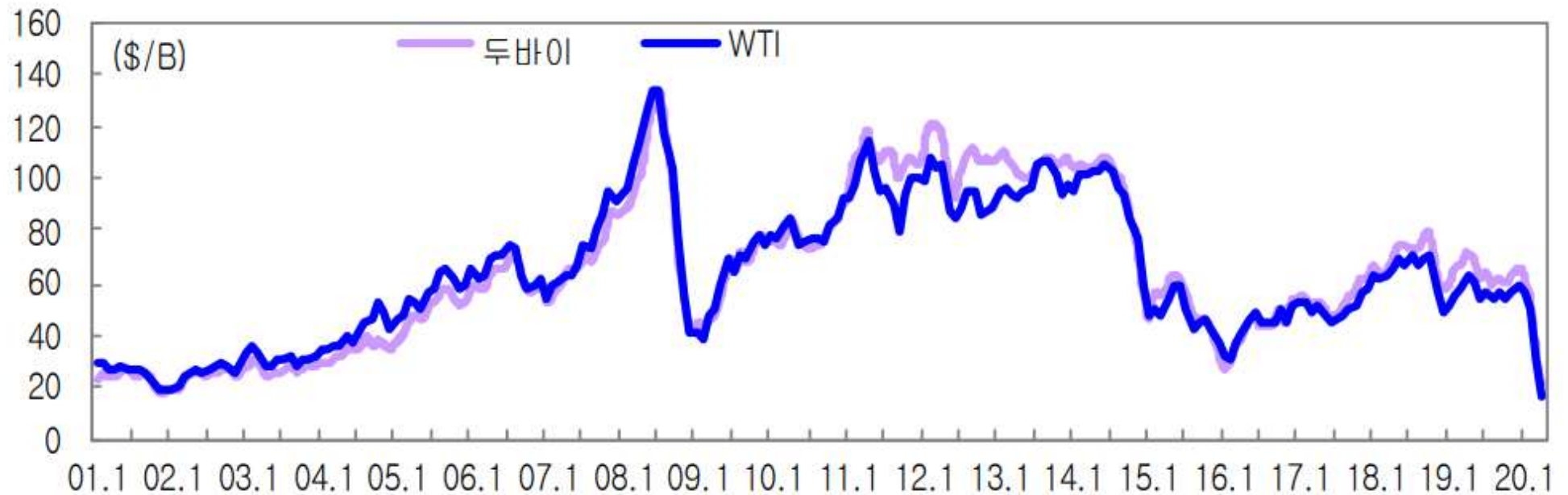
감염자 수가 극히 적음에도 불구하고 의류 산업과 관광업 붕괴로 인해 아세안 국가 중 경제적 타격을 가장 심하게 입는 국가 (ASIA TIMES (2020-05-12)).

- 미얀마

COVID-19 초기 확진자 0명을 주장했으나 현재 검사 건수가 작아 확진자 수를 알 수 없음.

의류 산업과 관광업 등의 붕괴로 실업자가 늘고, 해외 이주 노동자들의 대량 귀국으로 노동시장 붕괴 (ASIA TIMES (2020-05-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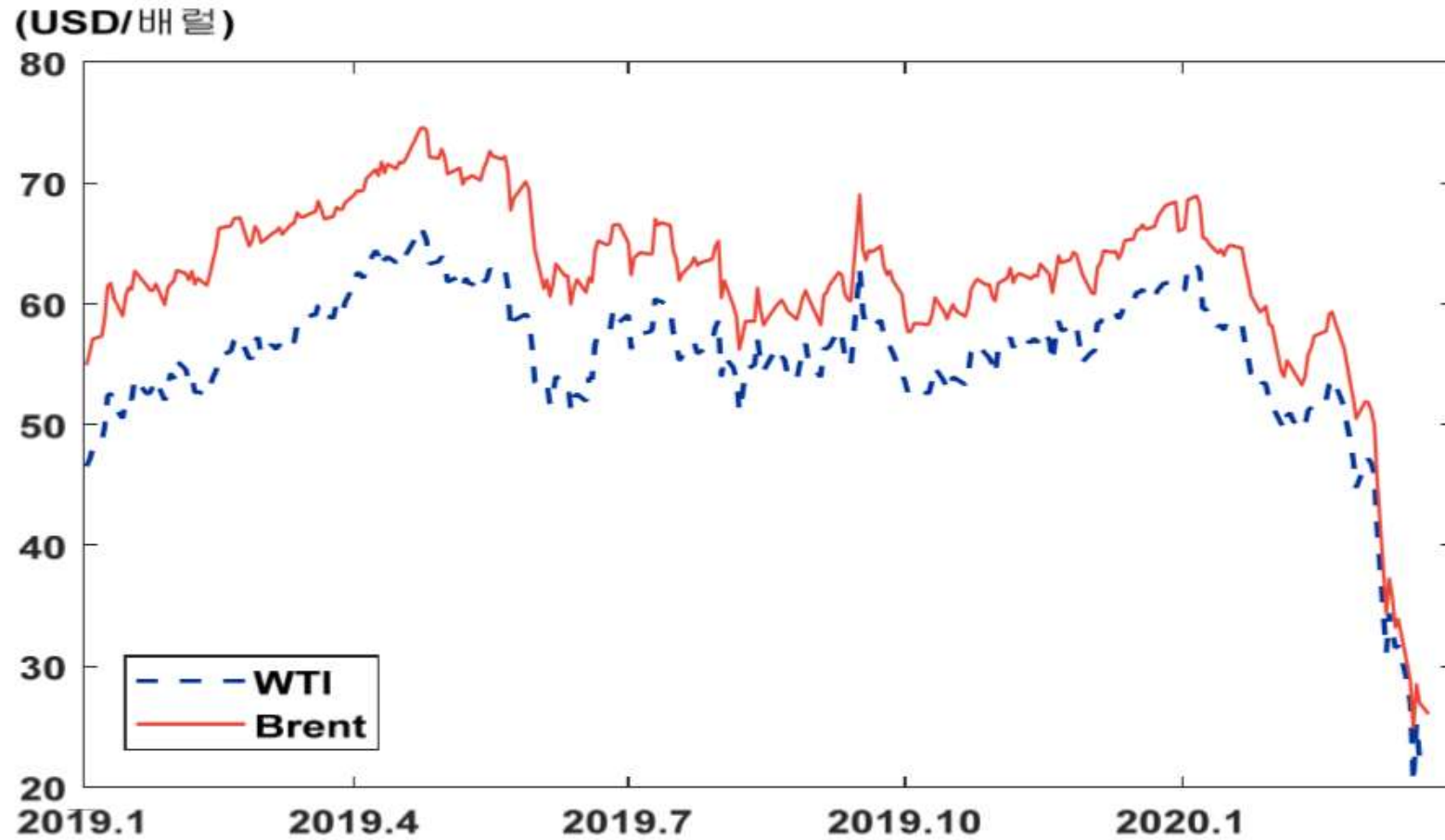
국제유가 추이



자료: 한국석유공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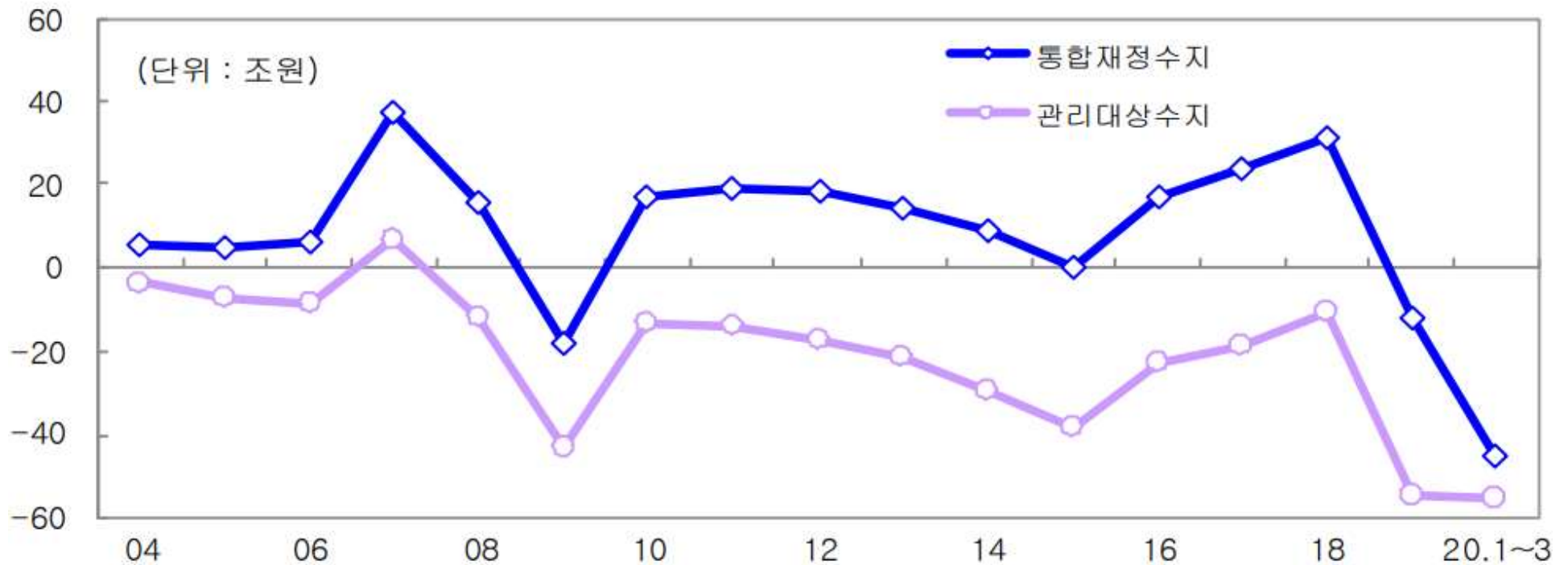
석유수요 둔화로 재고가 증가함에 따라 저장공간 부족 (4.20 WTI \$-37.63)

최근 유가 변화



자료: Bloomber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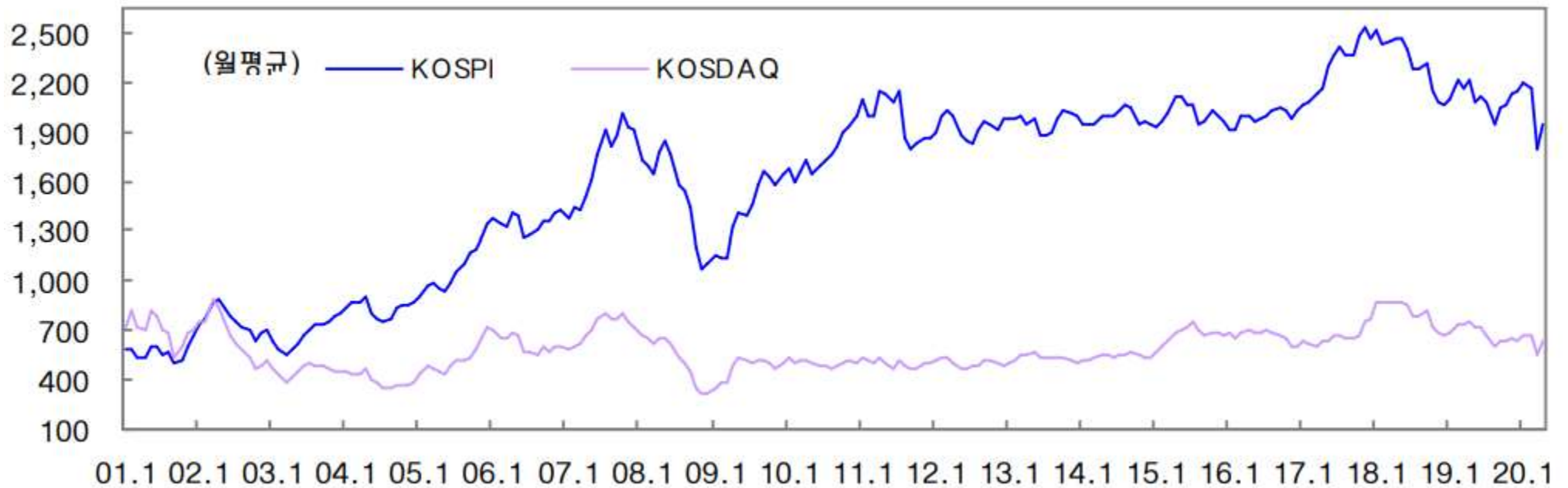
재정수지 추이



자료: 최근경제동향(2020년 5월)

2020. 3월 관리재정수지는 55.3조원 적자 (전년동기대비 적자 30.1조원 증가)
관리재정수지 = 통합재정수지 - 사회보장성기금수지

주가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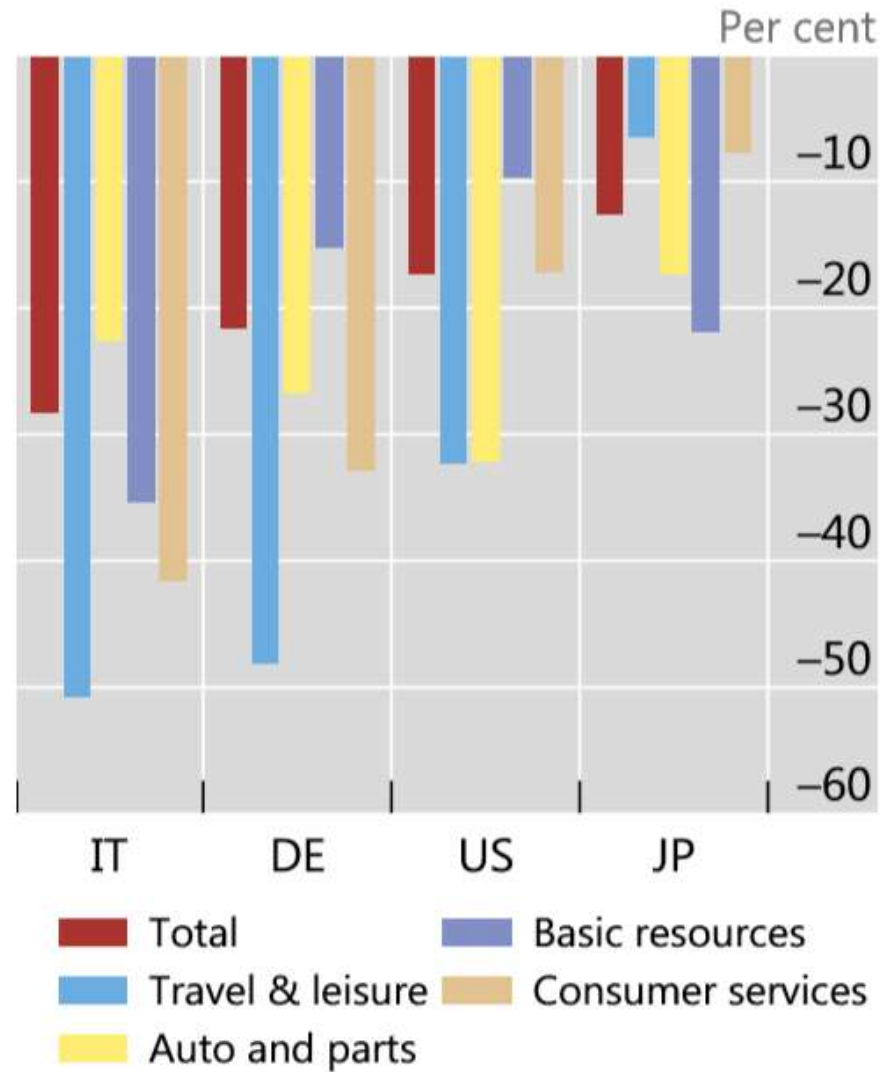
COVID-19 이후 약 1달간 주가가 37%가량 하락.
이후 지속적 상승.

최근 주가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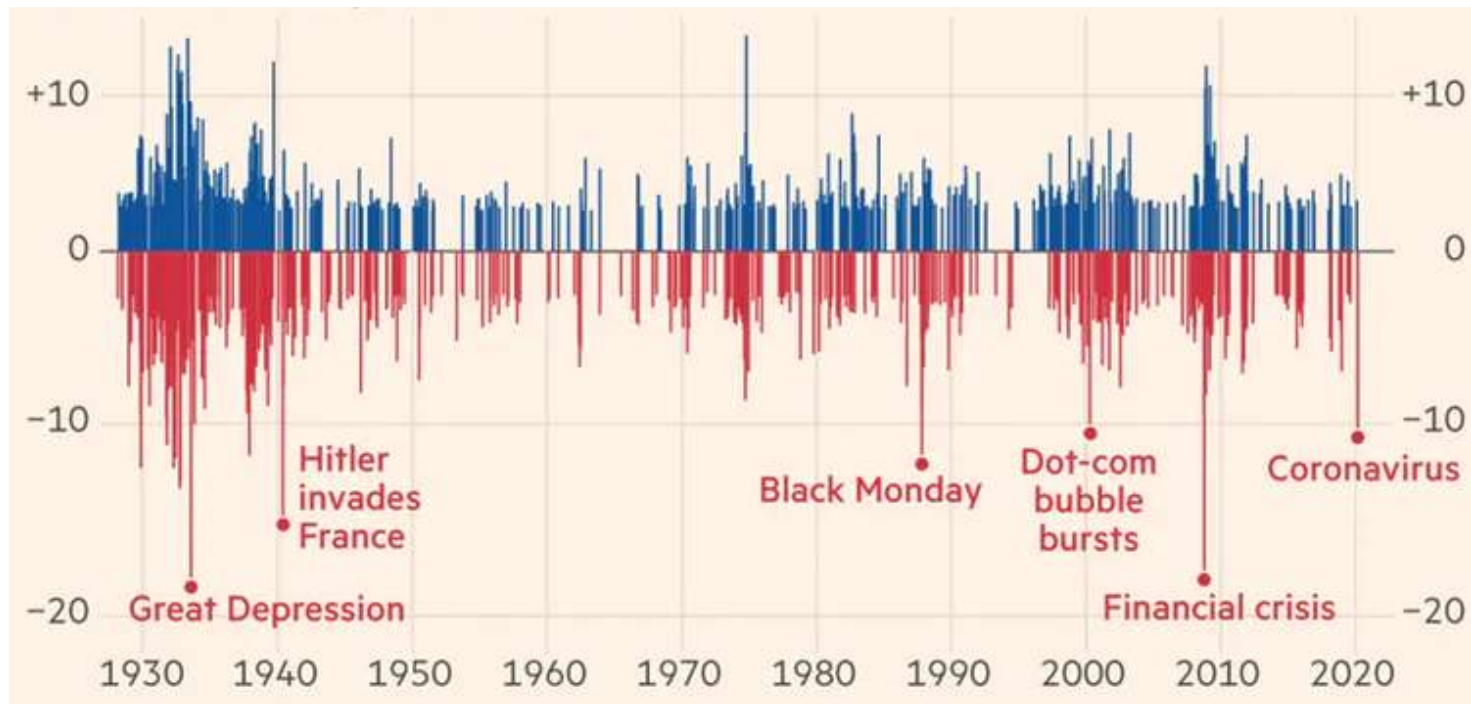


3/19 코스피 1,457로 11년 만에 최저

주가 수익률(2/21 - 4/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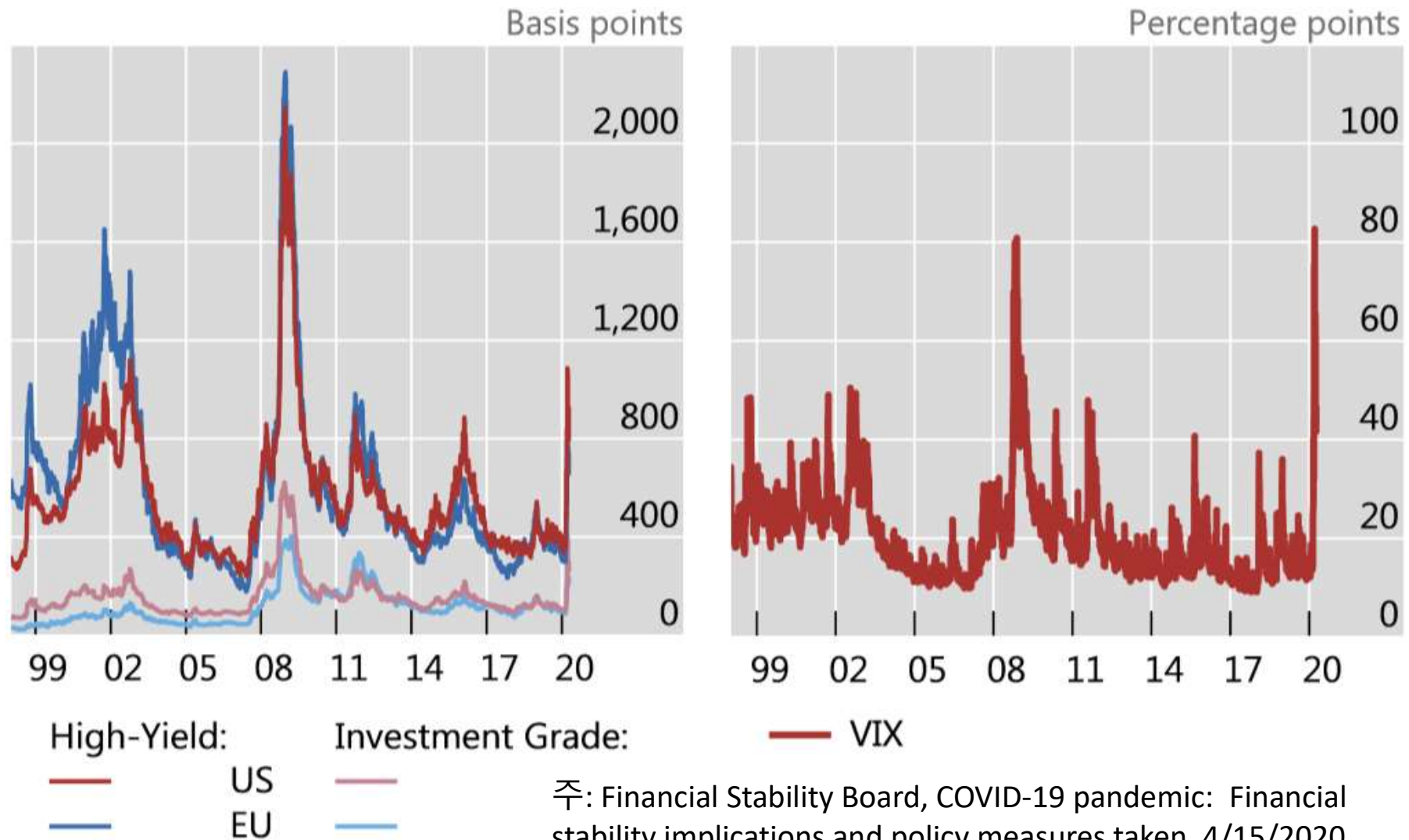


S&P500 주별수익률 변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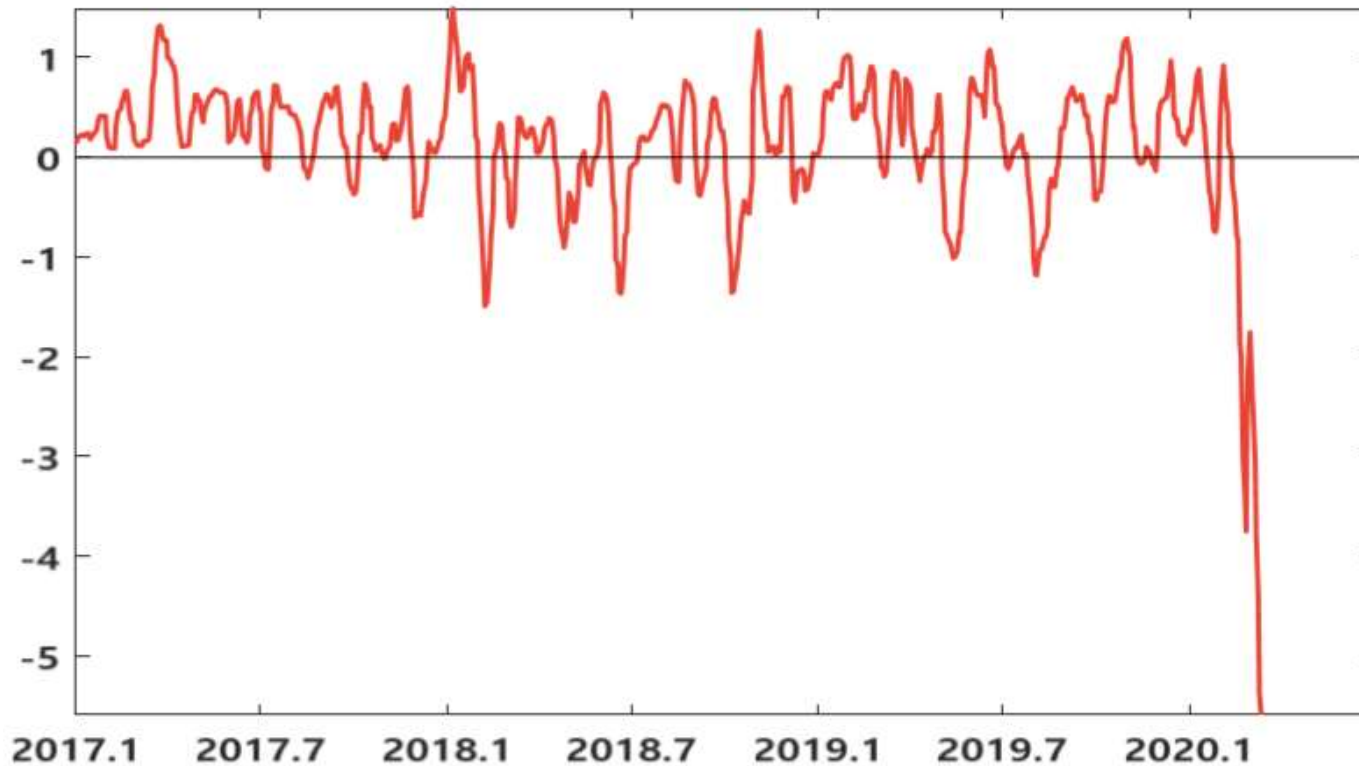
주: Financial Times

회사채 스프레드와 주식시장 변동성



신흥국 일별 비거주자 증권 투자액 변동

(십억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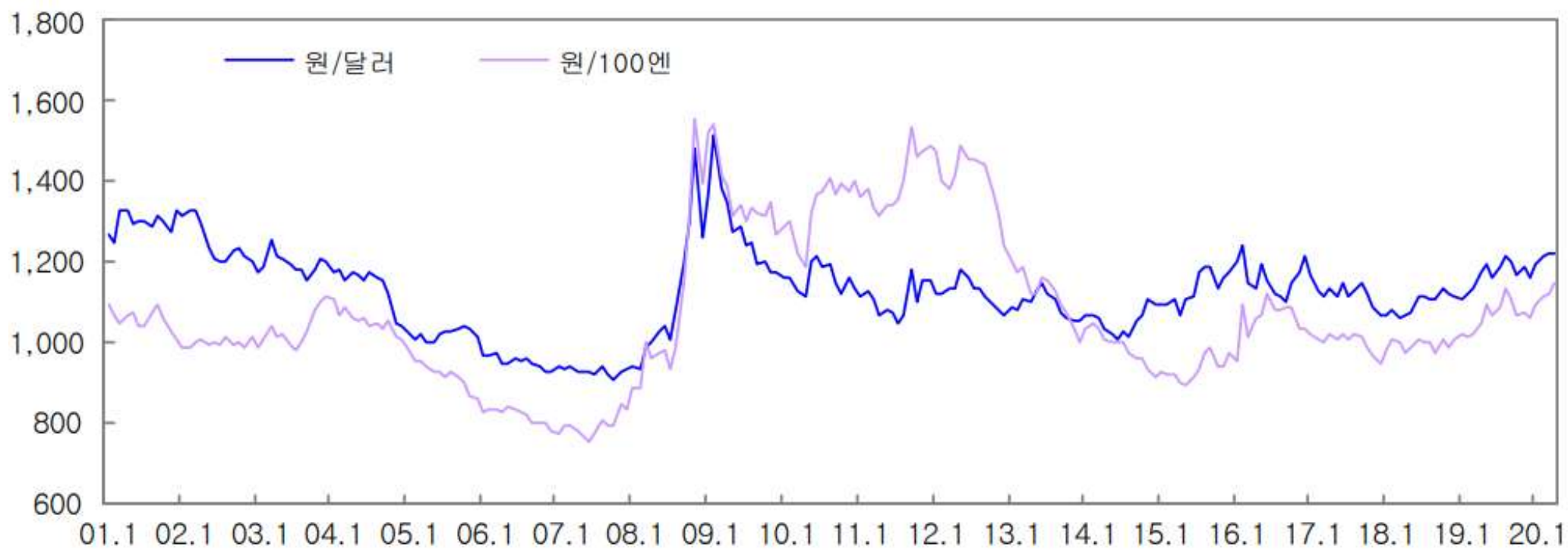


- 안전자산 선호
신흥국 외국인 일별
증권투자 순유출입액이
+/- 20억 달러에서 최근
순 유출액이 50억 달러
초과
- 한국
COVID-19 발생 이후
2개월간 외국인 매도
규모 20조원

주: 주요 11개 신흥국(한국, 중국, 대만, 베트남, 인도, 인도네시아, 태국, 필리핀, 남아공, 브라질, 헝가리)

자료: IIF

환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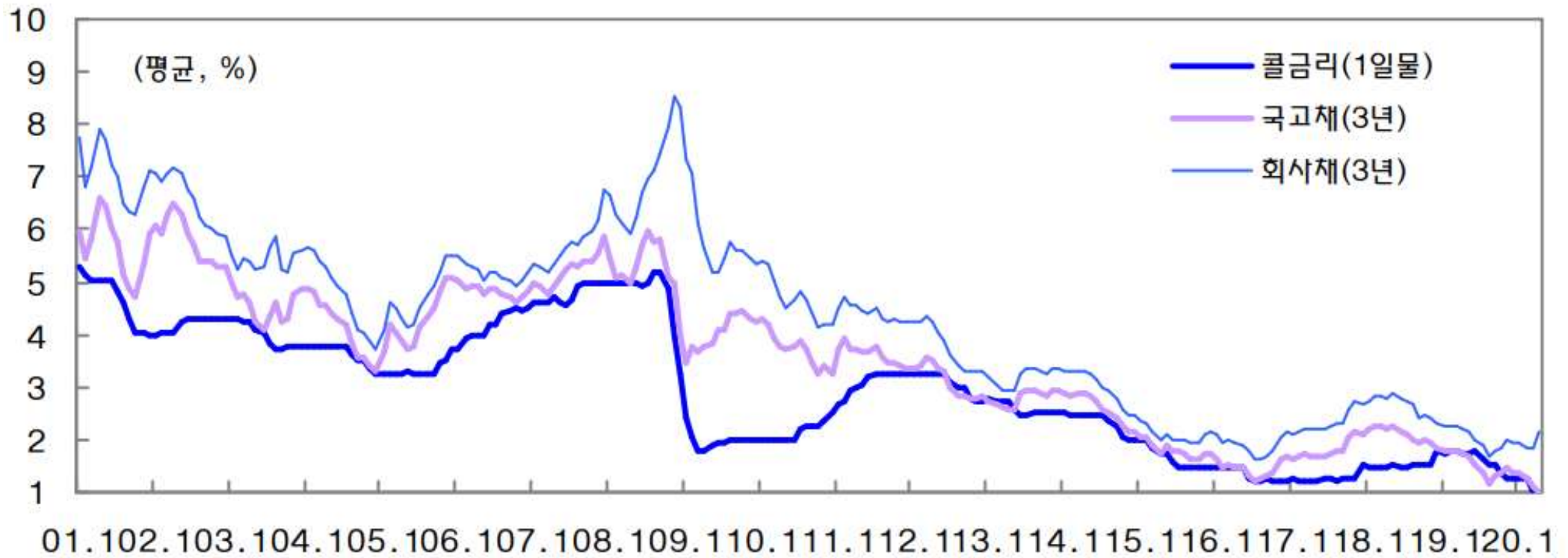


최근 환율 추이

- 위험회피 성향 강화로 달러화 선호 심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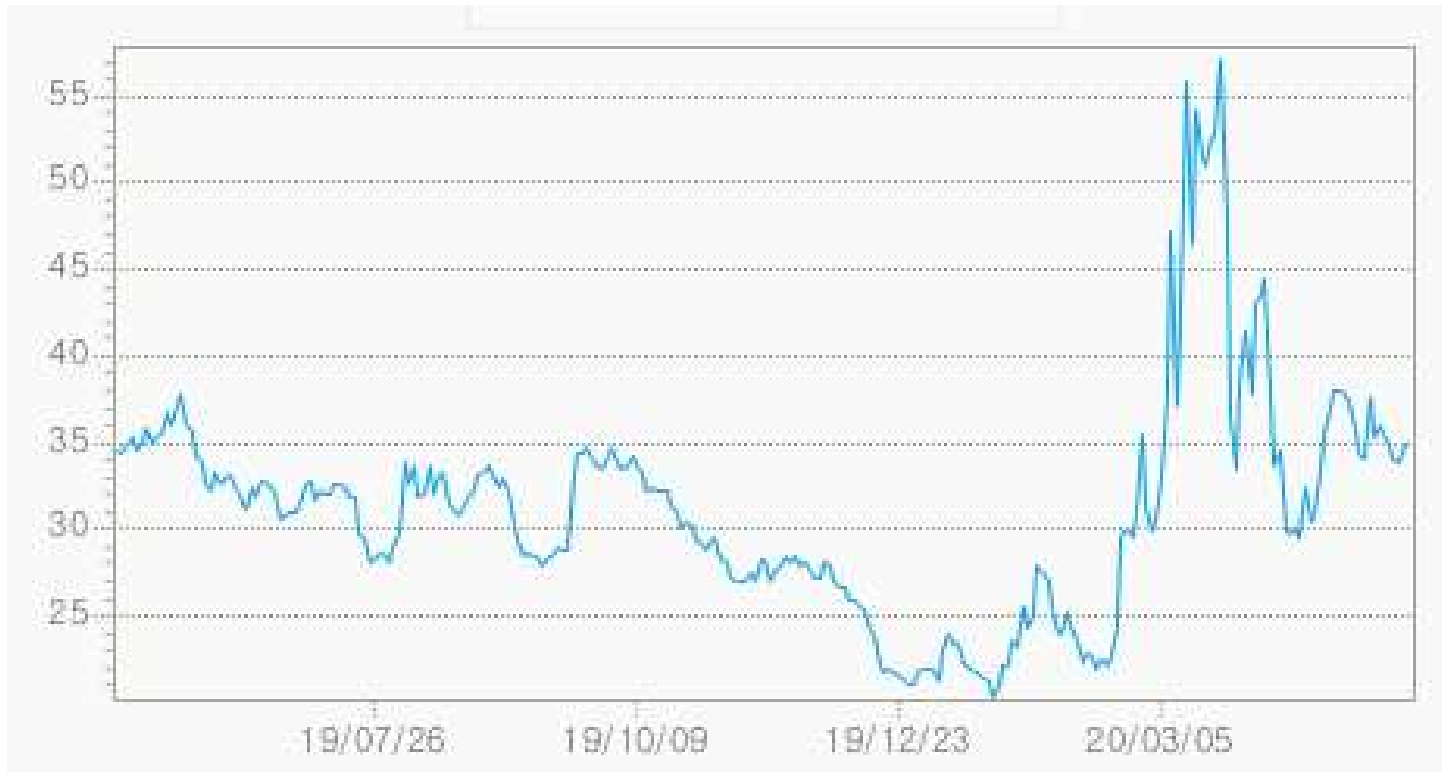


금리 추이



자료: 한국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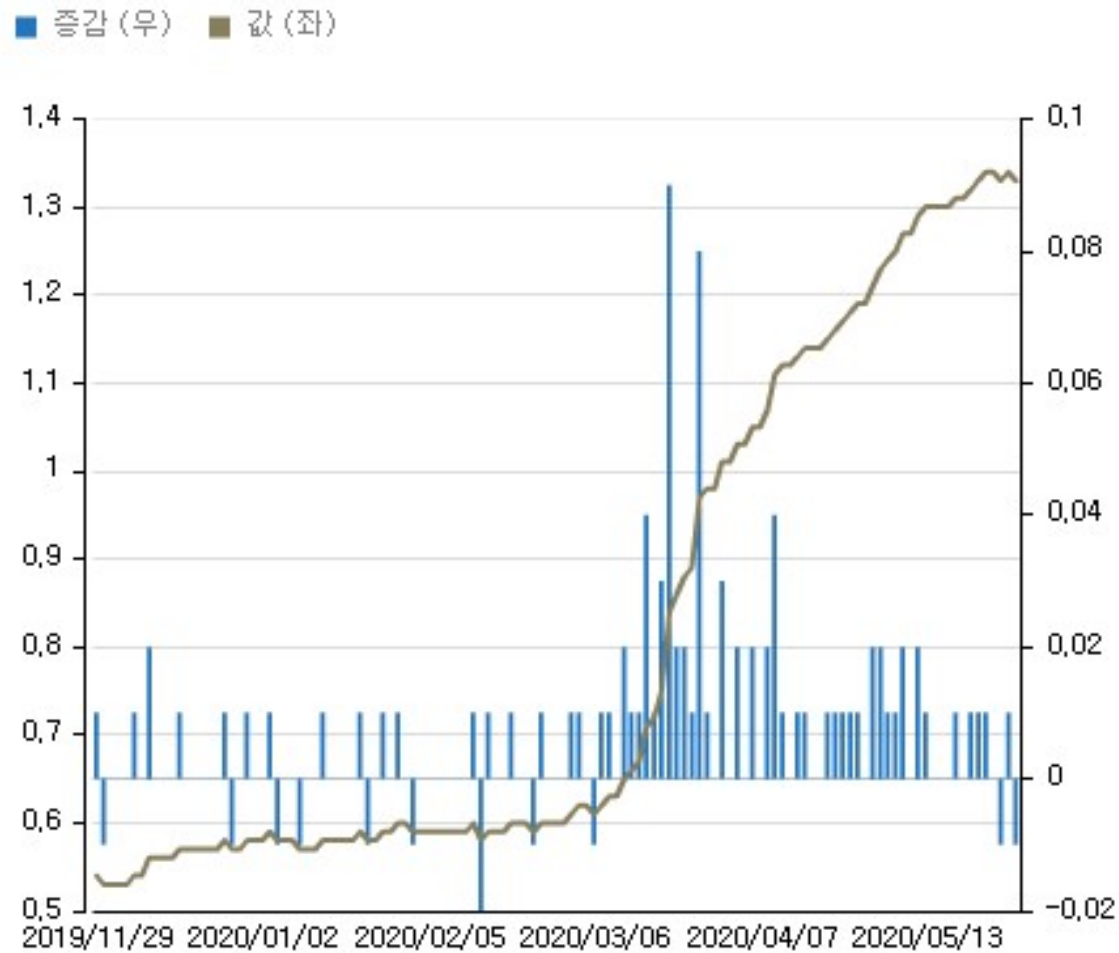
CDS Premium 추이



자료: 국제금융센터

한국정부 발행 외화 채권에 대한 5년 만기 CDS 프리미엄

신용스프레드 변화



자료: 금융투자협회
주: 회사채 (3년, AA-) - 국고채 3년

목 차

1. COVID-19의 영향
2. 각국의 단기 대책
3. COVID-19 이후의 경제
4. 뉴 노멀 시대의 금융시장
5. 뉴 노멀 시대 금융시장 전망

과거 위기와의 차이

- 금융위기와 달리 실물부문에서 시작, 세계경제 전반의 위기
 - 생산·소비·투자 활동 둔화
 - 글로벌 공급망 교란
 - 국제교역 감소 등으로 실물부문의 급격한 위축
- 소상공인·자영업자·중소기업 등 취약부문부터 위기 전이 가능
- 국지적 위기가 아닌 모든 경제주체에 영향
 - 부문별 처방(기업, 금융 구조조정 등)이 아닌 광범위한 처방

각국의 COVID-19 대응 재정지출 규모

생계 및 고용 지원, 저소득층 및 실업자·휴직자 등에 대한 현금 지급, 대출 지원 및 실업보험
기업지원, 의료 지원

	미국	중국	일본	독일	프랑스	싱가포르
재정지원	2조 2,343억	2조 9,184.7억	39.5조	615억	450억	399억
2019년 GDP	21조 4,277억	99조 865억	554조	3조 4,358억	2조 4190억	5,076억
2019년 GDP 대비 비중 (%)	10.4%	2.9%	7.1%	1.8%	1.9%	7.9%

자료: KIEF 세계경제포커스, 2020-04-20
KIRI 리포트 2020-05-25

- 싱가포르와 미국은 COVID-19 대응 재정 지출 중 75.2%(300억 달러)와 24.7%(5,515억 달러)를 저소득층 현금 지급, 실업 보험, 자영업자 지원 등 생계 및 고용 지원을 위해 배정
- 미국채 담보 RP 지원은 예전에도 있었으나, CP와 회사채 지원은 처음 - 신용시장 붕괴 방지 차원
- 일본과 중국도 실업 보험 확대, 사회 및 의료 보험료 인하, 육아 수당 지급, 고용조정 조성금 인상 등에 각각 전체 재정 지출 중 55.7%(22조 엔)와 22.6%(6,600억 위안)를 배정
- 일본은행은 주식시장의 안정을 위해 ETF도 매입
- Sims & Wu, 2020, Wall Street vs. Main Street QE, NBER Working paper.

각국의 COVID-19 대응 통화금융 정책

기준금리 조정, 유동성 공급 및 채권시장 안정화에 통화금융 정책 역량 집중

미국, 중국, 일본은 기준금리 인하 및 동결을 통해 금융시장 충격에 대응

유럽중앙은행(ECB)은 EU 차원의 유동성 공급 확대를 위해 7,500억 유로 규모의 양적완화

	미국	중국	일본	독일	프랑스	싱가포르
규모	2조 3,000억	6조 2,326.6억	7.4조	1조 1,730억 유로	3,000억 유로	200억 싱달러
2019년 GDP	21조 4,277억	99조 865억	455조	3조 4,358억 유로	2조 4,190억 유로	5,076억 싱달러
2019년 GDP 대비 비중(%)	10.7%	6.3%	1.6%	34.1%	12.4%	3.9%

자료: KIEF 세계경제포커스, 2020-04-20.

연준의 정책

- 신용위험 완화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음.
- 3월, 금리 1.5% 전격 인하(3.3 50bp, 3.15 100bp), 제로 금리 수준, 2023년 말까지 제로금리 유지 예상(Goldman Sachs)
- 무제한 양적 완화 발표(3.23)
- RP, MMF, ABS 시장 지원
- TB MBS 2조 달러 매입 -> 연준의 대차대조표가 6.6조 달러까지 높아짐(Oxford Economics) -> 장기 이자율을 낮추는 효과
- COVID-19 사태가 장기화되는 경우 한계가 있음.
 - 실업률이 대공황 이상이 되고, 부동산 시장으로 전이되는 경우 금융기관의 부실로 이어져 시스템 위험
 - 필요한 경우 실물을 지지하기 위해 (-) 금리 정책도 가능

각국의 정책 조합

[illegible]

COVID-19 관련 금융시장 안정화 방안 (3. 24)

- 신속한 “위기 차단(Crisis Containment)” 조치
- 기업들이 충격을 견딜 수 있도록 충분한 유동성(Liquidity) 공급
- 금융시장 시장안정화 장치(Stability Tools) 마련
- 초기 단계에 대규모로 강력하게 대응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 100조원+@”

기업자금 지원
[정책금융 등 유동성 공급]

+ 58.3조원

정책자금 대출지원

보증공급 확대

기업자금경색 완화

금융시장 안정 유지
[시장안정화 장치 마련]

+ 41.8조원

채권시장
안정펀드

증권시장
안정펀드

단기자금시장
안정 지원

금융시스템 안정 유지

추가 지원(4. 22)

- 기업안정화를 위한 지원을 75조원 이상으로 추가 확대
- 40조원 규모의 '위기극복과 고용을 위한 기간산업안정기금' 신설
- 기존의 100조원+ α 금융안정프로그램에 35조원을 추가로 늘려 총 135조원+ α 규모로 확대
 - 소상공인 자금지원 「2단계 프로그램」 10조원
 - 한국은행의 유동성을 활용한 회사채 · CP · 단기 사채 매입 20조원 등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개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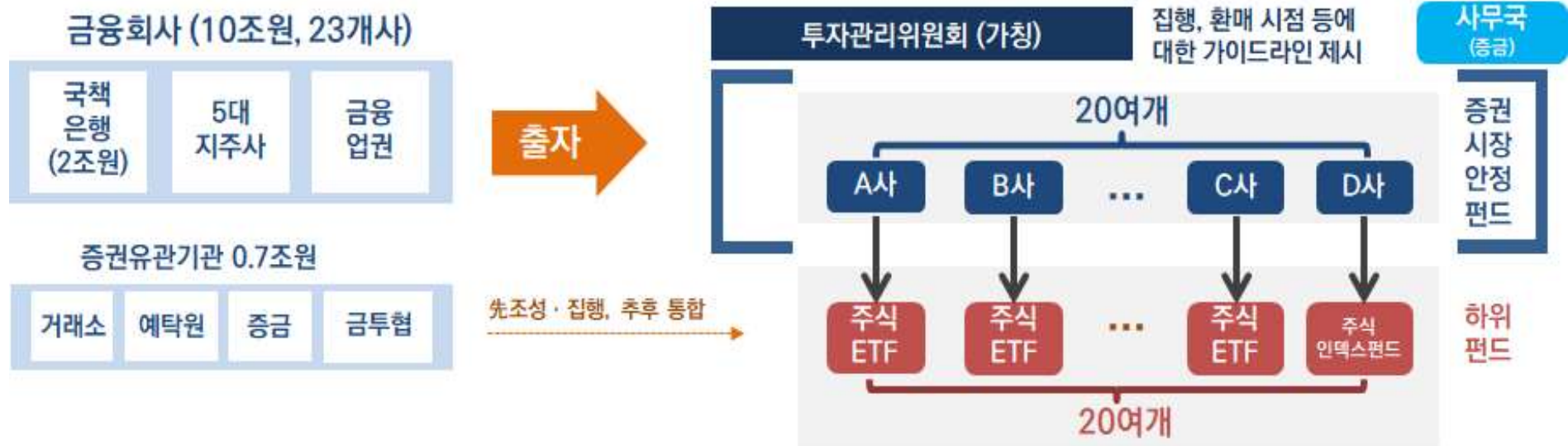
	대출·보증		증장기채		단기채 (CP, 전단채)	주식
	만기연장	신규공급	P-CBO	채안펀드	유동성 공급	증안펀드
소상공인 자영업자	○	○				
중소기업	○	○	○			
중견기업		○	○	○	○	
대기업		○	○	○	○	
(구조조정 대기업)						
증권사 여전사				○	○	
주식시장						○
채권시장				○		

○ (구조조정 프로그램, 산·수은 등 포함)

○ 既발표 방안
○ 신규발표 방안

주식시장 수요기반 확충

- 증권시장안정펀드 조성 ⇒ 10.7조원



회사채·단기자금시장 안정화

- 채권시장안정펀드 가동 \Rightarrow 20조원
- 원활한 회사채 발행을 위한 정책금융 \Rightarrow 4.1조원
 - 회사채 신속인수제도 \Rightarrow 2.2조원
 - 산업은행의 회사채 차환발행 \Rightarrow 1.9조원
- CP 등 단기자금시장 안정화 \Rightarrow 7조원
 - 증권사에 대한 유동성 지원 확대 \Rightarrow 5조원
 - 정책금융기관을 통한 기업 CP, 전자단기사채 차환 지원

외환시장 안정화

- 대외 건전성 개선
- 통화스왑 (3/19 600억 달러 한미 통화스왑 체결) 등 가용자원 확보
 - 미국을 포함한 8개국과 양자간 통화스왑 협정 체결
 - 아시아 주요국과 다자간 통화스왑 협정(치앙마이 이니셔티브) 체결
- 미 연준의 적극적인 역외 달러화 유동성 확대
 - 국제적 최종 대부자로서의 역할은 미국의 경제적 이익과도 일치
- 3/19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고점인 1,285.7원을 기록. 이후 3/31 및 4/7 두 차례에 걸쳐 한·미 통화스왑 자금이 유입되면서 외환시장 안정세

목 차

1. COVID-19의 영향
2. 각국의 단기 대책
- 3. COVID-19 이후의 경제**
4. 뉴 노멀 시대의 금융시장
5. 뉴 노멀 시대 금융시장 전망

포스트 COVID-19 변화

- 세계화 시대 글로벌 공급망의 문제점 – 비용절감과 효율 증대에 근거한 과잉 최적화
- 자국의 생산 안보, 전략적 안보 물자 확보
 - Reshoring
- Just in time -> Just in case
- 주요 산업의 부품 및 소재의 공급선 다변화
- 유통망은 대형업체 위주로 사업 재편

포스트 COVID-19 변화

- 경제위기 -> 물가하락, 디플레이션
- 비대면, 홈코노미 소비 추세 증가
- 비즈니스 방식 변화
- 소비자 보호 (행동경제학 측면)

경제 전망

- UN, 2020년 세계경제 성장률 전년 대비 3.2% 하락 전망
- IMF 4월 수정 전망

올해 세계경제성장률은 -3%(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0.1%)

미국 -5.9%, 유로존 -9.1%, 한국 -1.2% 전망

이는 COVID-19가 하반기에 진정된다는 가정하에 추정된 것

COVID-19 유행 기간이 50% 더 길어지면 세계경제성장률 -5.7%

- 세계은행 전망(6.9 발표), 세계 -5.2%, 선진국 -7%, 개도국 -2.5%
- COVID-19 종식에 대한 예측이 불가능하여 사태 확산에 따른 경제적 손실 규모 및 지속 기간에 대한 불확실성 상존 – 중국 양회 성장률 전망 포기

경제 전망

- 불황은 단기간일수도 (JP Morgan, 기본 가정 – 바이러스 연중 일단락, 회사 도산 정부가 방지, 대량실업 일시적)
- 그러나 금융위기 당시 미국의 수축 국면이 15개월 동안 지속되었던 것을 감안하면 경기 수축이 장기화될 가능성
- 더 크고, 더 자주

불안한 신흥국

- 3/18일 브라질 50bp 기준금리 인하 등 3월 이후 신흥국 대부분이 기준금리 인하
- 금리인하에도 불구하고 통화정책 여력 약화와 재정악화, 외환보유고 감소 등으로 금융 시장 불안 지속
- 재정적자 (2008년 이후 각국 재정의 호전에 상당 시간 소요)
- 위기 가능 경로

세계 경기 둔화로 인한 수출 감소 + 사회적 거리 두기 등으로 인한 내수 위축

재정 확대+유가 급락에 따른 재정 수입 악화 → 재정건전성 악화 → 신용등급 강등 → 신흥국 자산 구매 및 환율 급등

국가 신용위험

- 90개국 이상이 IMF에 자금 요청
- 피치, 2020년 다수 국가가 채무불이행에 빠질 가능성
 - 아르헨티나, 에콰도르, 레바논의 채무불이행 가시화
 - 채무불이행 국가 2017년에 이어 가장 많음
 - 4월까지 국가신용등급의 하향조정 국가도 29개국

경제 운용 방향

- 경제 주체 지원을 위해 풀린 돈이 제대로 돌도록 확장적 재정정책 필요
 - 일부 주요국의 비 금융 기업 및 비금융기관의 위험도가 역대 최고 수준 (IMF 글로벌 금융 안정성 보고서, 2019. 10)
- 기업과 개인의 부도 -> 금융 위기로 전이 가능성 차단
- COVID-19 이후 대비를 위한 근본 치료 필요
- COVID-19 전부터 경기 둔화, 고용창출 실패 -> 잠재 성장률 하락

경제 운용 방향

- 확장적인 재정 정책이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 가처분소득을 증가시키기 위한 감세 정책 함께 시행
- 구조조정 시 구제금융 지원 기준과 조건 마련하여 자원배분 효율화
- 규제 혁파
 -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획일적 주 52시간 근무제
 - 대형 마트 영업시간 제한
 - 금융시장 핀테크 규제
 - 부동산 시장의 재개발·재건축 규제
 - 혁신 기업을 가로막는 진입 규제 (예, 타다)

재정 건전성 확보

- 예상치 못한 경제적 충격으로 인한 대규모 위기 발생에 대응하여 재정 여력 확보 중요
- COVID-19 전부터 경기 둔화, 고용창출 실패로 잠재성장률이 낮아져 세입 여건이 악화 -> 재정지출 증가 속도 제어 없이는 지속적인 재정악화 불가피
- 정부, 기업, 가계 부문 총 부채가 GDP의 2.4배, 부채증가속도 세계 4위 (2019년 기준, BIS)
- 포스트 COVID-19 시기의 재정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자원배분 우선순위 조정
- 과감한 지출 구조조정 등 중기 재정 계획의 재점검 필요

목 차

1. COVID-19의 영향
2. 각국의 단기 대책
3. COVID-19 이후의 경제
- 4. 뉴 노멀 시대의 금융시장**
5. 뉴 노멀 시대 금융시장 전망

기존의 추세 지속

- 원래 있던 문제를 COVID-19 사태가 가속화
고위험, 고수익 투자 상황에서 -> COVID-19로 인한 변동성 확대
-> 기업의 부실 -> 기업에 투자한 금융기관의 부실
- 저성장-저금리-저물가의 뉴 노멀 시대
- 물가상승률
완화적 통화정책의 장기화에도 선진국 근원인플레이션율이 1-1.5%로
안정적
신흥국 근원 인플레이션율은 2018년 하반기 이후 하락 추세
- COVID-19 사태가 진정되더라도 글로벌 저금리 추세 지속 가능성
- 자산가격 변동에 대비 – timing 중요
- 저금리 시대에서의 금융 기관 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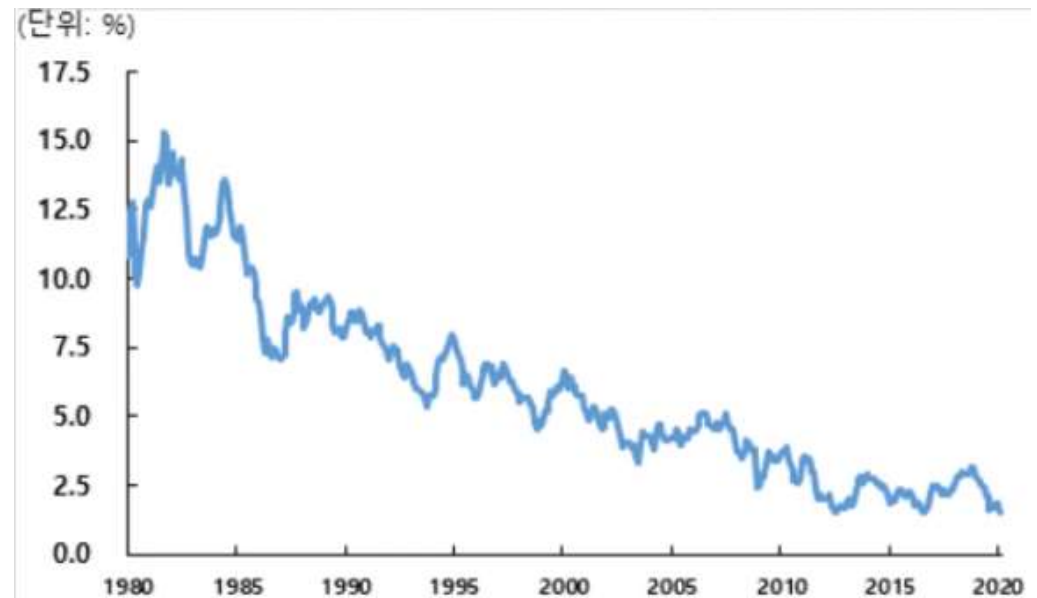
저금리 추세

주요국 정책금리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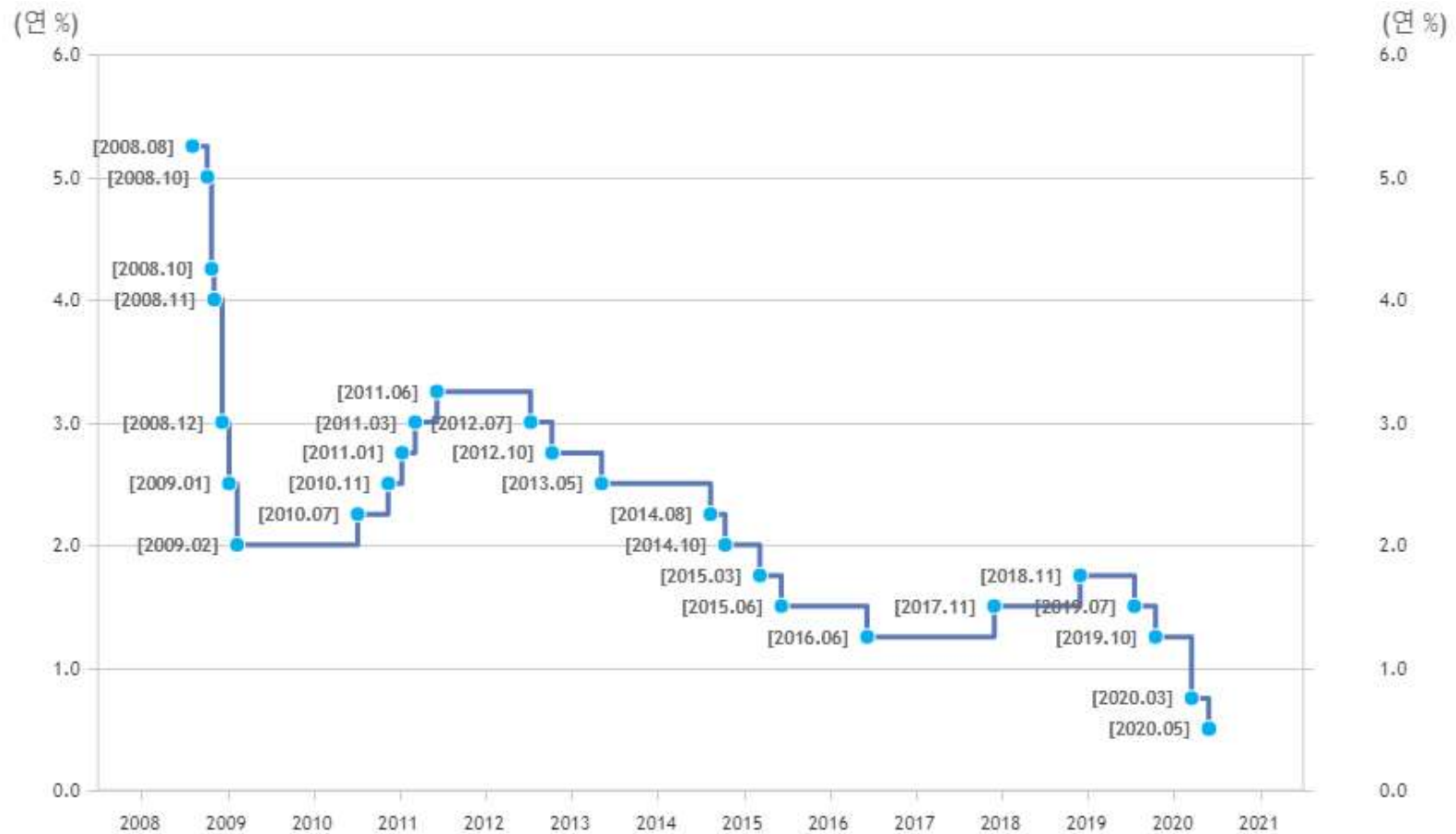
주: 2020. 3. 23. 기준
자료: 연합뉴스

미국 10년 국채금리 변화



주: 2020. 3. 23. 기준
자료: Federal Reserve Bank of St. Louis

한국은행 기준금리 추이



자료: 한국은행

저금리의 원인

- 생산성 기여가 낮은 혁신
IT, AI, 4차 산업혁명
- 기술발전으로 인해 자본재 가격이 하락하고 투자지출 감소
저축 > 투자
- 세계 저축률 상승
저축률이 높은 신흥국 비중 상승(사회안전망 미비)
- 인구증가율 감소
자본의 한계 생산성 감소로 투자이익 감소
인구고령화 -> 저축 증가+생산성 하락 -> 이자율 하락

저금리의 위험

- 구조적 불황으로의 확산

저금리+경제활동 둔화 -> 소비감소+저축 증가 -> 금리하락
통화정책의 효과 약화 및 딜레마

- 금융중개기능 약화 (만기, 신용도, 유동성 변환)

장단기 스프레드 축소, 신용 스프레드 축소

금융회사 수익성

- 은행 예대마진 축소, 보험 역마진, 채권투자 위축, 대출 부실화
금융회사의 건전성, 성장성 악화

저금리의 위험

- 가계부채, 기업부채 확대
중소기업 대출 지속적 증가
구조조정 지연으로 경제 체질 악화
- 자산 형성의 어려움
연금 수익률 하락 등으로 노후 대비 자산 축적 어려움
젊은 세대의 소비 위축
- 고위험-고수익으로의 쏠림 현상
Leveraged loan, CLO, 부동산 금융(아태지역 부동산 대체투자 비중: 2017년 중국 55%로 최대, 2019. 9. 한국이 35%로 최대)
소비자 보호 이슈

고위험 고수익 투자 배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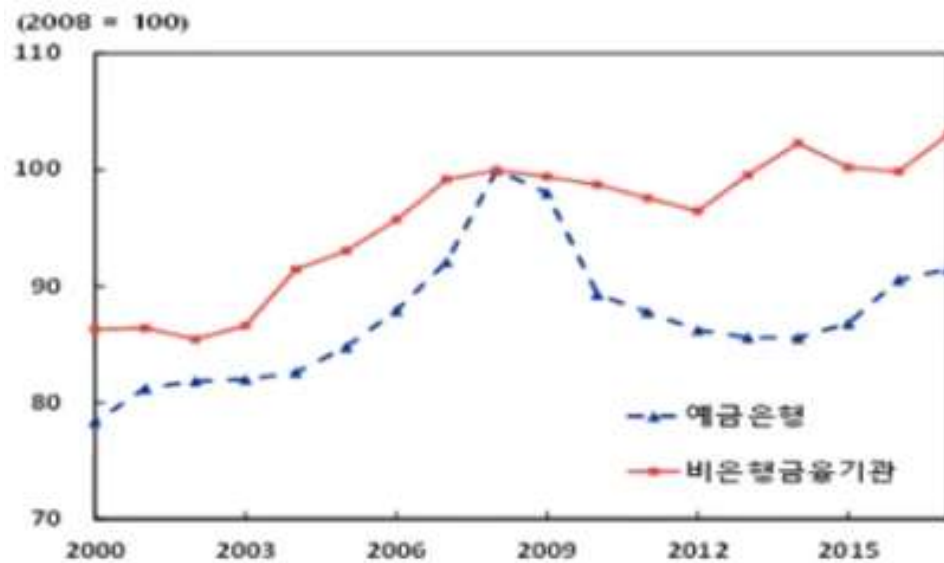
공급측면

- 은행권 규제 강화의 풍선 효과로 인해 비은행금융기관 신용 공급이 급증
 - 명목 수익률 목표가 있는 채권형 펀드, 확정 급여형 연기금, 보험사 등 비은행 금융기관이 낮아진 국공채 수익률 만회를 위해 고위험 고수익 투자
 - Mezzanine 부채, High Yield 채권, Leveraged Loan
 - 유동성, 자본적정성 등 비은행 금융권 규제 논의 촉발

수요측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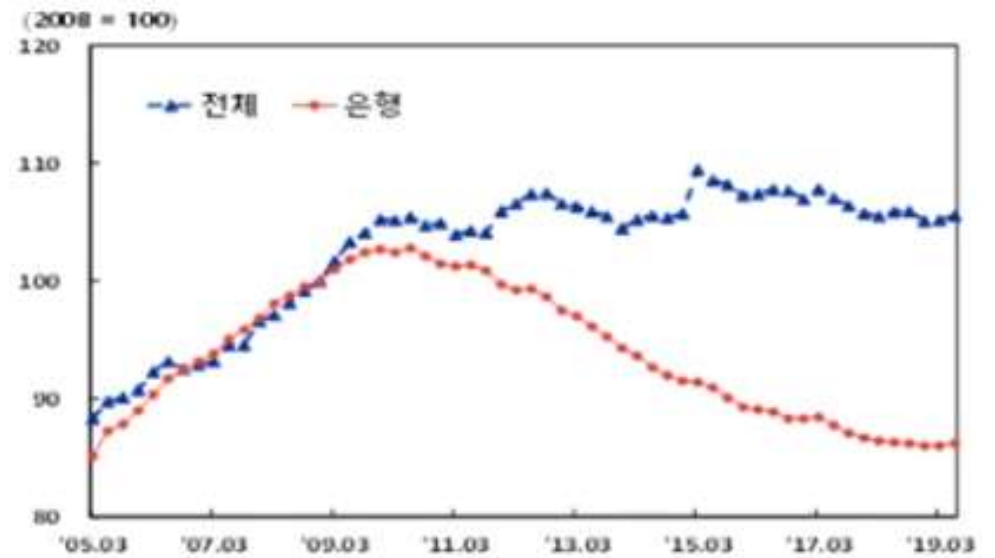
- 기업 및 사모펀드의 차입 경영
 - 차입매수(LBO), 인수합병, 차입을 통한 배당 및 자사주 매입

금융기관 자산(미국)



2008 자산/GDP 비율을 100으로 표준화
자료: FRED

비금융부문으로의 신용 공급(유럽)



2008 신용/GDP 비율을 100으로 표준화
자료: BIS

- High Yield 채권, Leveraged Loan 등의 규모가 2008년 CDO의 규모에 근접, 부도율이 2008보다 높아질 가능성
- 미국의 경우 전체 회사채 시장규모 9.5조 달러 중 High Yield Fund가 20%
- 가계와 기업이 부실해지기 때문에 정상화되어도 많은 자산의 위험도 심화
- 안전자산이 위험자산으로 변화될 우려
- 완화적 통화정책 -> 낮은 금리, 통화량 폭증
-> 고위험 자산 투자, 자산 버블
-> COVID-19 사태로 자산 가격 하락 -> 대출 기업의 신용위험 상승

자산 버블

- 대규모 유동성 공급과 확장재정으로 기업들의 건전성 이슈가 지연
-> 유동성 장세가 자산가격 상승 초래
- 현재 미국 가계 지표 중 가처분소득대비 가계 순자산 비율 7배
2000년도에 IT 버블로 6배로 상승 -> IT 버블 붕괴, 주식시장 침체
-> 2008년도에 부동산 버블로 6.5배로 상승. 이후 금융위기 발생.
현재는 주식, 채권, 부동산 가격이 모두 올라서 이전 두 번의 버블에 비해 더 심한 버블 상태.
- 한국은 주식과 채권 버블보다 부동산 버블 우려 존재
2019년도 서울 지역 부동산 가격 상승
부동산 버블 붕괴 시 사회적 비용 발생 (30대 투자자)

목 차

1. COVID-19의 영향
2. 각국의 단기 대책
3. COVID-19 이후의 경제
4. 뉴 노멀 시대의 금융시장
5. 뉴 노멀 시대 금융시장 전망

뉴 노멀 시대의 금융대책

- 거시 측면에서 시장과의 소통 강화
비관적 기대 형성 방지
기대 인플레이션을 높이는 정책 방안
비전통적 통화정책과의 정책 조합 검토
 - COVID-19과 같은 실물로부터의 위기에는 재정정책 우선
 - 통화정책은 금융 시스템에 유동성을 보증하는 방식
- 금리 상승에 대한 사전 대비
가계 및 기업의 부채 관리
펀드의 유동성 관리
정책 금융기관 점검
고위험 고수익 상품에 대한 개별 기관 노출 점검

- 금융중개 역량 강화

자산 간 상관관계를 금융회사 및 연기금 감독·평가 기준에 반영

- 상관관계가 높은 경우 위험 가중치 가중

- 정보 생산 및 분석 능력 강화

신용 공급 시 심사 분석을 더욱 정교화하도록 유도

정보 생산을 위한 금융권 협력 방안 마련

중소기업, 벤처기업 등에 대한 분석 기법 개발

- 가계의 과다 차입 통제 및 충격 대응
금리에 덜 민감한 모기지 상품 활용
차주의 특성, 연체 단계를 고려하여 소득 충격 대응
부동산 가격 하락에 대한 대응 방안 마련
주택 가격지수 연계 모기지 도입
- 기업부채 관리
중소기업 중심으로 부채 증가, 이자보상배율 1 미만 기업 증가
기업 원화 대출 증가액: 2월(5.1조), 3월(18.7조), 4월(27.9조)
신용위험과 지속가능성에 대한 평가 강화로 한계기업 연명 방지
정책 금융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부실 기업 판별 중요

- 쏠림 현상 대응

- 부동산 금융 관리

- 상품별 투자 현황에 대한 DB 구축
 - 위험 관리 지표 개발 및 관리

- 자산 관리 다양화

- 투자자의 선택권 확대를 위해 해외투자 세제 및 규제 정비
 - 해외투자 대상 및 방법 사이의 불합리한 차별 폐지
 - 퇴직연금의 해외 투자 확대

외환시장

- 국제 달러화 자금시장은 언제든지 경색될 수 있으며, 이는 국내 외환시장으로 전이되어 외화자금 수급 불안요인
- 글로벌 경기침체 우려가 현실화되고, 신용위험이 확대되고 있어 달러화 강세 및 유동성 선호현상이 당분간 지속될 전망

COVID-19 이후 외환스왑 시장에서 주요 통화의 미 달러에 대한 베이스가 큰 폭으로 확대(약 -100~-300 point)

달러 수요는 1년 이하 만기인 장외 파생상품 거래 증가 및 연금, 펀드, 보험회사 등 기관투자자들의 달러 헤지 수요 상승으로 증가

달러 공급은 달러 인덱스가 120 point를 넘는 등 달러 강세의 지속으로 위험회피 경향이 강해져 달러공급 부족

- 한국 외환시장은 1997년과 2008년의 위기 때와 비교하면 외환시장 위험은 상당히 개선된 상황

한국 외환보유액 및 순 대외 채권

	외환위기 (1997)	세계금융위기 (2008)	COVID-19 사태 (2020)
외환보유액(억 달러)	204	2,397	4,097
외환보유액/단기외채	0.4	1.3	3.0
외환보유액/월평균수입액	2.5	6.7	9.6
순 대외 채권(억 달러)	-638	315	4,806

은행 부문

- 세계금융 위기 이후 감독 강화, 유동성 및 자본금 규제로 은행 부문 건전성 향상
- 기업구조조정, 고위험 투자 규제로 회사채 시장 전반에 대한 거시 건전성 제고
- 한국은 가계부채 문제, 2019년 말 1,879조원, GDP의 96% 수준
- 한국의 은행 PBR 0.24로 외환위기 이후 최저, KOSPI 시가 비중 3.7%로 최저
- 글로벌은행의 수익성 악화 및 신용위험 확대

유럽은행들은 이미 수년째 고전 중인데 COVID-19로 위기상황까지 갈 수 있으며 자산매각, 합병 등 변화 압력에 직면

미국은행들은 이를 기회로 영향력 확대

인수합병 증가 가능성 (Ernst & Young)

- COVID-19 장기화에 대비하여 임시적 대응이 아닌 인력과 영업점 운영의 유연화 추진
- 비대면 채널 수요 증가, 콜센터, 모바일 banking 거래량 급증 등 비대면 서비스가 가속화
-> 고객과의 상호작용 강화와 차별적인 가치 제공을 위한 디지털 채널·기능 고도화 추진
- Open-banking 범위 확대 및 데이터 경제 활성화 -> On-off line을 병행하는 Omni-channel 구축, 클라우드 방식 도입하여 운영비용 절감
 - 핑안은행은 모바일 앱에 'Do it at home' 서비스 런칭, 금융과 OMO(online-merge-offline) 등 통합 비대면 서비스 지원
 - 중국은행(Bank of China) WM사업부는 COVID-19가 자본시장에 미치는 영향, 신규 출시 WM 상품 등 온라인 라이브 방송 운영
- 감염병이 금융시장과 영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응하기 위한 스트레스 테스트 및 리스크 관리 강화

보험 부문

- 보험영업 위축

경제활동 위축 -> 손해율 안정화 효과 하락, 대면 채널 영업환경 악화

실물 위축 -> 개인, 기업 손실 확대 -> 보험금 및 해지율 증가

- 지급여력 악화

저금리 -> 역 마진 확대, 준비금 부담 증가

신용 리스크 확대 -> 자산가치 하락 및 부실화, 자금조달여건 악화

환율 상승 -> 해외투자 환 헤지 부담 증가

주가 하락 -> 자산 감소, 변액보험 판매 감소

- 보험산업의 위험보장 및 실물 부문 지원을 강화하고, 극단적인 상황에서 시장 불안이 증폭되지 않도록 금융 안정성 제고
 - 의사소통 강화 - 보험회사가 자체적으로 COVID-19에 따른 영향 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금융당국에 보고
 - 보험료 납입 유예 - 소비자의 일시적인 유동성 부족이 보험계약의 중단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조치
 - 향후 도입될 K-ICS와 관련하여 극단적인 상황에 대비하여 제도의 유연성 확보
 - 검사 및 감독에 대한 보험회사의 운영 부담을 줄여 보험회사가 소비자에게 상품 및 서비스 제공을 원활히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
 - 상품 규제 완화 - 다양한 상품이 개발 제공될 수 있는 시장 환경 조성
- 부작용을 완화하기 위해 가격비교공시 활성화, 재무건전성 및 영업행위규제 강화

비접촉 금융

- 핀테크 업체의 간편 결제, 간편 송금
-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 은행계좌 없이 스마트폰 앱을 사용하여 송금 및 결제, 은행이나 신용 직불 카드의 지급결제 기능 대체
- 2019년 페이스북의 리브라 발행 계획 발표 이후 중앙은행들이 통화 주권 보호 차원에서 진행
- BIS는 영국, 유럽, 스웨덴, 스위스, 캐나다, 일본 등과 함께 국제적 공동연구
- 중국인민은행은 리브라 발표 이후 2020년 내에 일부 지역에서 디지털 위안화를 시범적으로 운영할 계획

- 데이터 경제 활성화

금융분야 「데이터 거래소」 출범(금융보안원 2020. 5. 11)

데이터 거래소는 데이터 검색, 계약, 결제, 분석 등 유통 전 과정을 원스톱으로 지원

수요자가 원하는 데이터나 제공 형태 등을 공급자에게 직접 요청하는 등 수요자 중심의 거래 시스템 지원

- 금융회사, 핀테크 · 빅테크 기업들이 데이터 유통 · 결합 · 사업화 등 디지털 혁신 성장 기반 강화

투자자 보호

- 개인투자자의 투자자예탁금이 45조원에 이르면
개인투자자의 투자가 실패할 경우 사회문제
-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강화, 상품 선정 및 판매 시 고객의 리스크 성향 고려
- 금융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2020. 3. 5. 통과, 2021. 3월부터 시행 예정
 - 불완전 판매 규제 강화
 - 금융소비자 청약철회권 및 위법계약해지권 확대
 - 분쟁조정인 사후 구제 강화
 - 법 위반에 대한 사후 제재 강화
 - 고의 과실에 대한 입증 책임을 금융판매업자가 부담

ESG 중요성 확대

-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최근 한달 간 국내에 상장된 ESG ETF 7개의 수익률이 7.13%
- World Economic Forum(2019) – 10년 전 글로벌 주요 위험요인은 대부분 재무적 요인들이었으나 2019년에는 환경, 사회 등 비재무적 위험 요인이 대부분
- MSCI(2019) – ESG 관리수준이 높은 기업은 낮은 기업에 비해 체계적 위험과 비체계적 위험이 모두 낮음
- COVID-19로 ESG 요인의 중요성 인식 확산, 각국 규제 대비
- 신한카드는 COVID-19 금융 지원을 목적으로 한 1000억 규모의 ESG채권 발행 성공

